

- 위원들은 과점주주 매각('16.11월) 및 우리금융의 지주사 전환 완료('19.2월 상장) 등을 통해 형성된 우리금융의 '완전 민영화' 모멘텀을 이어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함
- 이에 따라, 현재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지분(18.3%)을 '완전 매각'함으로써, 우리금융을 '민간의 품'으로 완전히 돌려주기 위한 '로드맵'(road map)을 논의·확정하였음
- * 우리금융 지주 전환('19.2월 상장) 이후, 공자위 및 매각심사소위원회(이하 '매각소위')를 중심으로 잔여지분 매각방안을 수차례 논의

2 추진배경

- 그간 공자위는 법령상 규정된 '민영화 3대 원칙'(금융지주회사법 부칙 §6)에 따라, 지분매각을 추진해 왔음

* 금융지주회사법 부칙 §6①: (...)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,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빠른 민영화 및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.

- '16.11월 과점주주 매각을 통해 '민영화' 기반 마련
- 아울러, 양호한 공적자금 회수(회수율 87.3%), 과점주주 중심의 지배구조 기반 마련 등을 통해 '공적자금 회수 극대화' 및 '금융산업 발전' 원칙도 일정부분 달성했다는 평가
- 그러나, 아직 예보가 우리금융의 최대주주(지분율 18.3%)로 남아 있는 상황으로,
 - ① 잔여지분 매각시기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고,
 - ② 예보 보유지분의 상당부분을 과점주주에게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, 완전한 민영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

< 우리금융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 >

- ☐ '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12.8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
 - 그간 지분매각 등 꾸준한 공적자금 회수 노력 등에 힘입어, 총 11.1조원을 회수(회수율 87.3%)
- ☐ '19.6월 현재, 예보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8.3% 보유중

- ☐ 이에 잔여지분의 조속하고 '완전한' 매각을 목표로 향후 매각 일정(로드맵)을 '미리' 제시함으로써,
 - 시장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시키고, 공적자금 회수와 민영화를 빠른 시일내 마무리하고자 함

3 우리금융 잔여지분 매각 방안

◆ 잔여지분 매각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, 매각시기·방식 등을 포함한 구체적 매각일정 마련

1. 매각기본 방향

- ☐ (매각시기) 원칙적으로 '20~'22년 3년간 약 2~3차례에 걸쳐, 최대 10%씩 분산 매각
 - '19年中에는 우리금융 자체 물량 소화*가 필요한 만큼, 예보 지분 매각은 '20년부터 시작
 - * 우리금융 이사회는 '19.6.21(金) 우리카드의 자회사 편입을 의결하였으며, 이에 따라 우리은행이 보유할 우리금융지주 지분 약 6.2%(약 0.6조원)을 향후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 매각해야 함
 -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,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약 2~3차례 매각 추진
 - 매회 매각물량은 시장수요를 감안 최대 10%범위 내에서 조정
 - 늦어도 '22년까지 완전 매각 목표로 추진

- ☐ **(매각방식)** 매회 10% 범위내에서 ① ‘희망수량경쟁입찰’을 먼저 실시하되, ② 유찰·잔여물량은 ‘블록세일’로 처리

* 예정가격을 상회하는 입찰자들 중 가격 順으로 희망하는 가격 및 물량대로 여러 명에게 낙찰시키는 방식('16년 과점주주 매각시 활용)

- 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,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에 유리한 전략적 투자자 등 대규모 투자자 앞 매각을 우선 실시
- ② 유찰·잔여물량이 있을 경우, 자동으로 블록세일 방식으로 전환하여 처리

2.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안

- ☐ **(대상)** 기존 과점주주 또는 신규 투자자* 대상 매각

* 예: 최소입찰물량(예: 4%) 등을 충족하는 대규모 투자자 등

- ☐ **(매각물량)** 매회 최대 10%

- ① 과점주주체제 안정 유지 필요성, ② 분산매각에 따른 주가 변동 부담 최소화 및 금융지주 전환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효과(Upside gain 향유 기대) 등을 균형있게 감안하여 결정

- ☐ **(투자유인)** 사외이사 추천권 등 투자유인책 적극 고려

- 구체적인 투자 유인책은 투자자 동향 분석 및 기존 과점주주 협의 등을 거쳐 매각공고 등에 반영 예정

* 사외이사(비상임이사 포함) 현황('19.3월말)

: 신한 12명(1명), KB 8명(1명), 하나 8명, 우리 6명(1명, 예보)

3. 블록세일 방안

- ☐ **(매각방안)** 매회 유찰*·잔여물량은 블록세일로 매각

* 예 : 매각공고 전까지 매각주관사가 투자수요 점검 결과,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등

- ☐ **(매각물량)** 회차별 잔여물량 범위 내에서 최대 5%

4. 매각 관련 기타 사항

- **(매각실시 간격)** 희망수량경쟁입찰(약 4개월) 및 잔여물량 블록세일(약 2개월)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, 원칙적으로 1년 주기로 매각을 실시하되, 직전 매각일로부터 6~18개월 기간 중 실시

* 다만, 시장상황 등 매각여건이 급변하는 경우, 공자위에서 매각 시기·방안 등을 재논의 할 수 있음

- **(세부 매각조건*)** 매회 매각 추진시 매각소위에서 심사 後 공자위 의결을 거쳐 매각조건 확정

* 예: (희망수량경쟁입찰) 최소입찰물량, 컨소시엄 허용 여부 등
(블록세일) 최저매각가격, 최고할인율 등

- 향후 공자위는 금번 공자위 의결사항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

4 향후 추진계획

- ('19.下) 국내외 투자여건 점검
- ('20년~'22년) 매각소위 심사, 공자위 의결을 거쳐 매각 실시
 - '20.上 1회차 지분 매각 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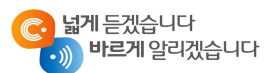
< 매회 매각절차 개요 >

- (예보) 투자수요 파악 등
- (매각소위) 매각물량, 시기, 최저가 등 세부 매각조건 결정
- (공자위) 세부 매각조건에 대한 매각소위 논의결과 등 의결
- (예보) ①매각공고 ②투자의향서(LOI) 접수 ③본입찰 ④낙찰자 결정 및 주식매매계약체결 ⑤유찰 또는 잔여물량은 블록세일 추진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가. 지분취득경위 및 지분구성

- **(취득경위)** '98년부터 '06년까지 舊한빛은행 등 5개 금융기관*의 부실을 정리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을 지원

* 舊한빛(한일·상업은행 포함)·평화·광주·경남은행·舊하나로증권

- 舊한빛은행 등 5개 금융자회사 주식을 우리금융에 이전하고 우리금융지주 주식 7.3억주(100%) 취득

- **(지분구성)** ①예보 18.32%, ②국민연금 8.37%, ③우리사주조합 6.39%, ④과점주주 25.9%(IMM 5.96%, 키움·한투·동양 3.98%, 한화 3.80%, 미래에셋 3.66%, 유진 0.52%) 등('19.6월 기준)

나. 주요현황

('19.3월말 기준)

종업원수	자 산	부 채	자 본	당기순이익
114명(22,880명*)	345.15조원	322.95조원	22.20조원	5,687억원

* 자회사(국내 및 해외) 포함

다. 회수현황

('19.5월말 기준, 단위 : 억원)

구분	지원(A)	회수(B)		차이(B-A)
출자	94,422	지분 매각	국내공모('02.6월, 6,800원)	3,672(7.1%)
			1차 블록세일('04.9월, 7,200원)	3,240(5.7%)
			2차 블록세일('07.6월, 22,750원)	9,168(5.0%)
			3차 블록세일('09.11월, 15,350원)	8,660(7.0%)
			4차 블록세일('10. 4월, 16,000원)	11,607(9.0%)
			자회사(지방은행) 매각('14.10월)	17,288
			소수지분 매각('14.12월, 11,288원*)	4,531(5.94%)
			과점주주 매각('16.12월)	23,616(29.7%)
			콜옵션 행사('17.5월~'17.12월, 13,866원)	2,753(2.94%)
		배당금		19,274
		소계		103,809
출연	33,241	파산배당금 등		7,595
합계	127,663	111,404(회수율 : 87.3%)		△ 16,259

* 소수지분 입찰 시 예정가격을 상회한 낙찰자 3개사의 주당 입찰가격 평균 단가

구 분	1차	2차	3차			4차
공자위 의결일	'04.8.24.	'07.5.17.	'08.1.11.	'09.10.16.	'09.11.20.	'10.4.2.
(매각물량)	10%이내	5%	7%	7%	7%이내	7%±2%
(최저매각가)	6,800원	20,600원	17,400원	기준가격 × (1 - 주가 변동성)	기준가격 × (1 - 주가 변동성)	기준가격 × (1 - 주가 변동성)
(할인율)	-	3.75%	2.0%	4.5%	4.5%	4.5%
매각실행일	'04.9.9.	'07.6.21.	'09.11.24.			'10.4.9.
주당매각가격	7,200원	22,750원	15,350원			16,000원
매각물량	5.7% (4,500만주)	5.0% (4,030만주)	7% (5,642만주)			9% (7,254만주)
회수액	3,240억원	9,168억원	8,660억원			11,607억원
매각 시 할인율	3.1%	1.09%	4.36%			0%

1. '16년 매각 추진 방안과 무엇이 달라졌나?

- 금번 잔여지분 매각방안은 '16년 과점주주 매각 방안의 연장선상이며, 민영화의 마무리 단계임
- 금번 매각방안은 잔여지분의 조속한 매각에 초점을 맞추고 잔여물량에 대한 매각방법과 시기를 미리 제시한 점에서 차이가 있음

2. 향후 매각일정(로드맵)을 미리 제시한다고 했는데,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?

- 기존 매각계획은 특정 매각방식을 추진한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어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후속대책 마련에 상당기일이 소요되었던 것이 사실
- 이번 계획은 '22년까지의 지분매각 '로드맵'을 미리 제시 (예 : 시기, 방안, 물량 등)하여 완전 민영화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지님

3. '16년 과점주주 매각을 통해 이미 민영화 성과는 달성했다고 평가되는데?

- '16년 과점주주들에게 매각한 이후 과점주주 중심 이사회를 구성하고 우리금융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해 왔다는 점 등에서 이미 민영화의 성과는 상당부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음
- 다만, 예보 지분 18.32%가 남아 있어 여전히 공적자금 투입 회사라는 한계가 있었던 점도 사실임
- 금번 잔여지분 매각방안이 완료될 경우, 민영화를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4. 비은행 자회사 확충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後 지분매각을 시도해야 하는 것 아닌지?

- ☐ 지주전환 후 우리지주의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 등으로 기업가치 제고가 '가시적으로' 나타날 때까지 매각 착수 시기를 늦추자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음
- ☐ 그러나 공자위는 '민영화의 3대 원칙', 지주사 전환 완료('19.2월) 및 자회사 편입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現시점에서 잔여지분 매각방안을 확정하고 매각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음

* 우리금융 민영화 원칙(금융지주회사법 부칙 §6①)
: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, 조기 민영화, 금융산업 발전

① '19년 중 기존 자회사의 지주 편입* 등에 따른 지주체제 완비

* 우리금융지주는 '19년 중 우리카드, 우리종금 등 기존 우리은행 자회사의 지주 자회사 편입을 완료할 계획

② 실제 매각은 '20~'22년 중 분산매각을 통해 진행될 예정인 만큼, 향후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효과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5. 매회 지분 10% 내에서 매각물량을 정한 이유는?

- ☐ 원칙적으로 '20~'22년 3년간 약 2~3차례에 걸쳐, 최대 10%씩 분산 매각할 예정
- ☐ 매각 회수(약 2~3회) 및 회당 매각 물량(최대 10%) 등은
 - ① 과점주주체제 안정 유지 필요성, ② 분산매각에 따른 주가 변동부담 최소화 및 금융지주 전환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효과(Upside gain 향유 기대) 등을 균형 있게 감안하여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

6. 과점주주 매각('16년)과 같이, 투자자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할 것인지? 어떻게 이를 보장할 것인지?

- ☐ 금번 공자위에서 희망수량경쟁입찰 시 사외이사 추천권 등 투자유치 방안을 적극 고려기로 결정했음
- ☐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 등 구체적인 투자 유인책은 투자수요 확인, 기존 과점주주 및 우리금융지주 경영진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임

* 기존 과점주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, 매회 매각 추진 시, 매각소위 · 공자위 의결을 거쳐 매각공고 등에 반영될 예정

7. 입찰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다음 수순(잔여물량 매각방안 등)은 어떻게 되는지?

- ☐ 매회 입찰 후, 유찰 ·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, 블록세일 방식으로 자동 전환하여 매각할 예정

8. 외국금융기관이나 외국자본의 경영 참여 등 지분 매수에 대한 입장은?

- ☐ 원칙적으로 관련법령(예 : 금융지주회사법 등) 등에 따라, 외국 금융기관이나 외국자본에게도 국내투자자와 동등한 참여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
- ☐ 세부 매각조건에 대해서는 추후 매각소위 심사 · 공자위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